

## 고전소설 속 서사적 지연의 제 양상

조용호\*

<차례>

1. 서론
2.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과 인지 수준
  - 1) 일부 인물은 알지만 독자는 모르는 경우
  - 2) 인물과 독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
  - 3) 인물은 모르지만 독자는 아는 경우
  - 4) 일부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경우
3. 지연 전술의 의도와 효과
  - 1) 이념 지향과 교훈성의 강화
  - 2) 재미 추구와 쾌락성의 제고
  - 3) 쾌락성과 교훈성의 조화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서사 지연의 양상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지연은 대개 스토리 수준의 인물과 담화 수준의 독자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나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인물과 독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유무와 차이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것들이 실제의 소설들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폈다.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남가록>·<절화기담>·<심청전>·<춘향전> 등 4편이었다. 이 소설들에서 채용된 지연 전술은 그 4가지 범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구사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4편의 소설들에서 작가 혹은 서술자가 지연 전술을 구사하게 된 의도와 효과에 대하여 살폈다. 그 결과 지연 전술을 구사하는 의도는 교훈성을 강화하거나, 쾌락성을 제고하거나,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려는 데로 수렴되고 있

\* 목포대학교 국문과 교수

었다. 그 가운데 주로 쾌락성을 추구한 <절화기담>과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고자 한 <남가록>은 세련된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하고 있어서, 발전된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연 전술이 고전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지연, 정보, 스토리, 담화, 인지, 교훈성, 쾌락성, 남가록, 절화기담

## 1. 서론

문학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수수께끼의 속성을 지닌다. 비록 유일한 정답을 결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문학 텍스트는 약호와 해호의 의도·과정·기능이 수수께끼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잡한 수수께끼일 수록 문제 속에 해결에 필요한 단서가 들어 있지 않으면, 그 답은 매우 모호하거나 난해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하여 좋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반대로 해결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제공된 수수께끼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여 흥미를 끌기 어렵다. 그래서 수수께끼의 출제자는 보통 문제 속에 해결에 필요한 만큼의 단서를 포함시켜 두고, 지속적으로 응답자의 흥미를 유도하게 마련이다. 이 점은 문학에서도 똑같아서, 작가는 항상 풀이를 위한 단서를 두고 적절하게 정보 제공 방식을 조절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붙잡아두려는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

소설에서는 흥미 유발을 위한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긴장(*suspense*)과 놀람(*surprise*)의 연쇄를 적절하고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실행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연(*retardation*) 전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지연은 주로 텍스트의 시간 조직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써,<sup>1)</sup> 작가가 사건의 시말과 인과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회피

하거나 고의적으로 미루는 방식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제어하는 기법을 뜻한다. 그런데 담화상에서는 서술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독자의 사실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지체 현상까지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만큼 서사적 지연은 텍스트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가의 천재성과 기획력을 따지는 표현론의 관점에서나, 독자의 반응과 독서 효과에 관심을 갖는 효용론의 관점에서나, 서사 내적인 구조와 결 그리고 관계 요소에 관심을 갖는 존재론적 관점에서나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연 전술은 독자를 자신이 현재 대하고 있는 텍스트 속에 붙잡아두고 생각하게 만들며, 독서 행위의 근간이 되는 궁금증의 발생과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sup>2)</sup>인 것이다.

고전소설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인물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주요 사건들이 스토리 수준<sup>3)</sup>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 제시되고 있으며, 담화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anachrony* 실험 정신이나 유형화된 서사구조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파격을

---

1) 담화상에서 시간 조직의 문제는 주로 사건 제시의 순서 *order*, 지속 *duration*, 빈도 *frequency*의 세 측면에서 논의된다. 텍스트 시간론에 대해서는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p.33~160. 및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69~91쪽 참조.

2)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16.

3) 이 글에서는 스토리 수준, 담화 수준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서사 이론가들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그 함의에 차이가 있어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범박하게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스토리 수준은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 속의 세계이다. 그리고 담화 수준은 스토리 수준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자가 서술하여 독자(엄밀하게는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용하는 피서술자)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된다. 그런 경우라면 사건 전개 자체의 지연이 나 어떤 사건에 대한 지연 서술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기획의 소산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작가가 소설의 본질이라 할 허구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상상력과 구성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쓴 소설들에 나타난 서사 지연이라면,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런 차이들에 주목하면서 고전소설에서 구사된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에 출현한 일부 소설은 특정한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근대소설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과 인지 수준

스토리 수준에서 사건의 지연은 인물들이 사건에 대해 가진 정보의 차이 자체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담화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 연쇄와 그 속에 숨겨진 사실에 대해 서술자가 진술하고 독자가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에 의해서 발생한다. 지연 전술은 핵사건<sup>kernel</sup> 뿐만 아니라 위성사건<sup>satellite</sup>, 그리고 서사의 거시적인 구도뿐만 아니라 사건과 인물구성의 세부에서도 구사된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구사되는 현상들을 모두 포괄하는 완전히 등가적이고 균질적인 범주를 도식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독자에게 인지되어야 작가가 지연 전술을 구사한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물과 독자가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뿐만

4) 나는 지연 전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할 겸해서 매우 익숙한 소설인 <심청전>과 <춘향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소설인 <남야록>과 <절화기담>을 주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아니라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서술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 발화되어 독자가 알게 되는 時點은 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5)</sup>

나는 서사의 수준과 인물과 독자의 인지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아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방식과 층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려 한다.<sup>6)</sup> 사건의 당

- 5) 서사 지연은 스토리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될 수도 있으며,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함께 구사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되는 서사 지연은 인물의 행위와 무관하며, 오로지 독자의 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이때 인물과 독자가 ‘안다/모른다’를 판별할 때 무엇을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연 전술은 인물과 독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단지 정보의 보지 여부만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연은 개별 사건이나 사건 맥락에 대해 서술자가 즉각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 수준 즉 사건 당사자인 인물을 둘러싼 세계에서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서술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거나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없지 않다. 독자는 이때 서술자가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되는 지연 전술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지연 전술은 정보의 소유 여부에 의한 것과 독자가 사건에 대한 서술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6)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얼핏 떠오르는 것이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구사된 지연으로 나누는 방법, 순서·지속·빈도라는 시간 조직의 방식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지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으로 나누어 범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채택을 주저하게 된다. 서사 이론에 따라 텍스트의 실제작가, 내포작가, 서술자의 존재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독자 과정에서는 이론상으로 그것과 대립점을 형성하는 피서술자, 내포독자, 실제독자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에 실제독자는 그 세 차원의 인격 범주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해석된 의미는 그 가운데 누구의 것인지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 조직의 방식에 따라 범주화하는 방법은,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수준이 스토리인지 담화인지 매번 언급을 해야 하기에 번거롭기도 하고, 두 층위에서 병행되기도 하므로 설명과 이해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그 범위를 두고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연 전술의 다양한 양상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사자인 인물을 넘어 독자를 특별히 고려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존재와 역할이 범주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밖에 지연 전술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 행위를 지속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사하는 전술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 지연 전술이 스토리 수준에서만 구사되어 일부 인물은 알고 있는데, 독자는 모르는 경우이다.<sup>7)</sup> 사실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는 각기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개 속임수에 빠지는 자는 주인공이나 서사 내적 비중이 큰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지연 전술이 작중인물의 관계 내에서만 구사되므로, 독자가 그 지연 전술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실이 서술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지점에 이르러서이다.

둘째, 스토리 수준에서 구사되는 지연 전술이 서술자의 발화를 통하여 동시에 담화 수준으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스토리 수준의 인물과 담화 수준의 독자가 모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진행 중인 사건을 옆에서 중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서술이 주로 이에 해당하는데, 그런 서술 자라면 사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한 서술은 사건 종결 시까지 유예된다.

셋째, 지연 전술이 담화 수준에서만 구사되고 있어, 스토리 수준에서 움직이는 사건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담화 수준의

---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채택한 방법은 그 세 가지 방식을 포괄적으로 절충한 것이다.

7)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지연 전술에 대해 인물은 알고 있는데 독자가 끝까지 모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독자에게 단서마저 감춰지는 스토리 수준의 사건은 텍스트 수준에서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독자의 해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사건 맥락의 시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독자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는 추측하게 마련이다.

독자는 전모를 다 알고 있는 경우이다.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가 주로 문체되므로, 서술자가 고의적으로 사건 전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간을 정지시키고 장황하게 특정한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연 전술이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동시에 구사되어, 인물 가운데 일부도 독자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범주에서처럼 스토리 수준의 사건 당사자인 인물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인공이나 중심 인물을 대상으로 속고 속이는 모티프가 채용되기도 한다.

#### 1) 일부 인물은 알지만 독자는 모르는 경우

서술자의 존재 이유는 스토리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데에 있다. 설사 사건 맥락을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역할을 최소화한 채 숨어서 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서술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건의 시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서술자를 통해서만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서술자가 항상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향후에 전개될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속속들이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독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사건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기도 하고 정보 제공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고전소설에서 서술자가 가장 획기적인 방식으로 고의적인 지연 전술을 구사한 텍스트를 꼽으라면 우선적으로 <남가록>을 거론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는 이름에 ‘石’자가 들어가는 4명의 복수 주인공이 등장하여 전장

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데,<sup>8)</sup> 그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인 황석태의 등장과 영웅적 능력 획득의 전초 단계에서 전대미문의 경천동지할 지연 전술이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가국 최고 부호의 독자로 태어난 인물이 어떻게 방탕한 인물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는지 그 근거와 인과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채택된 전술이다.

(석태는) 재주와 그릇이 출중하였고 듣고 보는 것이 영리하여 시부(詩賦)와 금서(琴書), 바둑과 장기, 마작과 윗놀이, 그림과 가곡 등등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매일 어리석고 여기저기 물러다니는 돼먹지 못한 녀석들과 어울려 닭싸움도 하고 말 달리기도 하고 기생도 끼고 술도 마셔댔으나 황웅(석태의 아버지-주)은 오로지 그에게 맡겨 둘 뿐이었다.

한번은 대하국(大夏國) 옥호(玉湖)가 천하의 명승지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놀고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대하의 이수(李睡)는 내가 재화를 거래할 때 부리는 사람이니, 만약 재물을 쓸 곳이 있으면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말고 가져다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주었다. 석태는 값이 천금이나 나가는 준마를 타고 풍류남아 수십 명을 거느려 옥호로 갔다. ~

(옥호에 가서-주) 하루는 천렵을 하였는데 ~ 점점 앞으로 나아가니 붉은 누각이 구름 사이로 백 척이나 솟아 있었는데, 붉은 색 고운 비단은 눈을 아찔하게 하고 지붕은 해 만큼이나 빛이 났다. 비단 창이 반쯤 열리고 향 피우는 연기가 잠시 사라지니 어떤 한 여자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모습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이었다. 달 같은 용모에 별 같은 눈동자가 경국지색으로, 만일 달그림자를 탄 향아가 아니라면 분명코 달을 비웃는 서시일 것이었다.

8) 그 이름은 각각 石天將, 石化珠, 黃石胎, 崔石虹인데 思天王의 현신으로 서사에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순서나 지닌 용력의 절륜함은 등장하는 순서와 같지만, 신분과 지력 그리고 소설에서의 비중은 그 반대의 순서를 지닌다.

석태가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자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주렴을 내려 버렸다. ~

“아까 천렵할 때에 제가 대나무 숲 근처에 가보니 중간에 높은 누각이 있고, 누각 위에는 참말로 경국지색이라고 할 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뒤로는 정신이 혼미해서 죽은 뒤에나 그칠 것 같습니다.” 점보(석태가 옥호에서 사귄 바람둥이-주)가 크게 놀라 머리를 흔들고 혀를 차며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대하국 대장군 조불화의 정실입니다. ~ 그 남자는 외모와 재주가 이하(淇河) 동쪽 13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취하여 정실로 삼은 것이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나와 영랑이 비록 천상의 태을선관이라서 대력신장에게 분부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 ” ~

춘절(조불화의 정실의 몸종-주)이 곧 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부인이 화장을 지우고 허리띠를 풀고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 석태는 그녀의 버들 같은 허리를 부여안고 촛불 아래로 나아가 한바탕 전투를 치렀다. 이들은 지쳐 널브러진 한 쌍의 봉황이 되어 서로의 만남이 늦은 것을 도리어 한탄하였다. ~ 대개 그 뒤부터는 부인과 소저(여장한 석태-주)는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 마음속으로는 전혀 변민하지 않았다.

하루는 서울에서 기별이 왔는데, 대장군이 지난 4월 20일에 발행하여 5월 18일에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18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 춘절이 (조불화의 명으로 다락에 숨은-주) 소저를 끌어내리니 ~ 남자인데 여복을 한 것이었다. ~

(석태에게 매수당한 조불화의 문종들이-주) 바빠 손을 놀려 결박을 풀고 모두가 별이 흩어지듯 뿔뿔이 달아났다. 석태도 이리가 달아나고 쥐가 숨듯이 목숨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 석태는 조 장군이 쫓아와 잡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숨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 “나는 천행으로 온전할 수 있었으나, 그 부인은 칼 아래서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가련하고, 애석하구나!” ~

석태는 그날로 ~ 옥호로 달려갔다. ~ 죽림 근처에 가보니 붉은 누각과

그림 같은 전작은 쓸어낸 것처럼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만 제비가 날고 강이 물결치고 인가 담장으로 나비만 넘나들 뿐이었다. ~ 석태가 말을 꺼내어 캐물으니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남가국 화천군의 아들 석태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방자하고 풀어지고 방탕하게 놀았겠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매우 사랑한 까닭에 차마 나무라지는 못하였는데, 마침 석태가 풍류남자 몇 사람과 함께 옥호를 여행하겠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사람됨이 마땅히 대단한 짓을 할 것이라고 헤아려 차인 수백 명이 함께 유람하며 구경하게 했겠지? 그리고 또한 시냇가에 빼어난 누각을 짓고 그 안에 미녀를 숨겨 놓고 석태로 하여금 보게 할 마음이 동하게 했네 그려. ~” 석태가 잠자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시 후 자리를 끝마쳤다. 석태가 이 말을 한 번 들은 후에는 갑자기 흥이 깨져 버려서, 세세한 허물과 전날의 일이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말을 달려 돌아왔다.<sup>9)</sup>

인용문은 생략한 부분이 많은 상태로 제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서술자가 전달하는 사건은 박진하고 묘사는 생생하며 대화 속에 투영된 인물의 심리는 매우 사실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지연 전술은 스토리 수준에서만 구사되고 있는데, 사건의 내막에 대해 중심인물인 석태는 모르지만 여타의 인물들은 다 알고 있어 완벽하게 그를 속이는 연기를 펼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당연히 독자들도 모두 석태와 같은 조건에 놓여 있어서, 담화 수준에서는 사건 발생의 내막에 대한 핵심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독서를 진행한다. 서사가 박진하고 생생하게 전개되는 만큼, 독자들은 사건의 내막이나 향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석

9) 조용호 역, 『한국 최고의 전쟁·종교·환상소설 남가국』, 도서출판 박이정, 2008, 56~95쪽.

태가 방탕과 황음에서 헤어날 수 없다가 극심한 긴장과 죽음의 위기를 거치고 낮이 나간 듯 허탈함을 느끼며 대오각성하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그와 함께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이 때문에 주인공 황석태의 일거수일투족을 바짝 따라가면서 감정적 부침을 겪고 공감하며 감동적으로 서사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sup>10)</sup>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에는 황웅이 그 연극에 동원되었던 조불화와 그의 정실을 맡았던 여인을 비롯하여 연극에 동원되었던 주요 인물들을 불러 석태와 대면시키는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은 석태가 느꼈던 허탈감에 공감하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을 완벽하게 허구가 주는 재미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지닌다. 석태가 겪은 일이 모두 그의 부친이 완벽하게 연출한 연극이었으며 그는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독자들은 긴장의 해소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주는 묘미에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가록>에서 이처럼 고차원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지연 전술을 구사하여 독자를 경탄하게 만든 방식은 그것 이전에 나온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에서도 볼 수 없었을 만큼 파천황적이다.

10) 이 사건은 원문에서 32쪽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그 이전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석천장과 석회주에 관해 서술된 총 분량인 13쪽에 비하여 훨씬 길다. 석태의 이런 행위들은 이후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그가 활약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기에 단지 흥밋거리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남가록> 전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일종의 사족으로 서사 전체의 유기적 구조나 일관성 있는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돌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본 연구자도 있지만(강경미, 「<남가록>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2014, 26쪽.), 나는 이 일련의 사건이 귀한 집 외아들인 황석태가 왜 무장으로 변신하게 되는지, 뒤에 왜 여장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옥석태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등의 근거가 되기에 결코 사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2) 인물과 독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

<절화기담>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반복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지연 전술을 구사한다. 스토리 라인은 남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던 이생이라는 인물이 옆집 방 아무개의 여종인 어린 유부녀 순매와 만나고 헤어지기까지 2년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추진 동력은 이생의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욕망의 실현 여부는 이생과 순매의 마지막 만남에 가서야 확인된다. 이처럼 결과는 전체 서사의 거의 마지막에 제시되기 때문에, 서사에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연 전술의 범위는 거의 텍스트 전체에 이른다. 그래서 독자는 이생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인물들의 만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순매에게 흑심을 품은 이생은 그녀와 성교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을 공들여 여러 차례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중간에 몇 차례나 이생이 순매와 성교를 하기 직전까지 행위가 진전되기도 한다. 차례로 그 만남과 관계의 진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대면: 이생이 순매를 처음 보고 반한다.

두 번째 대면: 이생이 종이 맡긴 순매의 노리개를 얻고 이를 매개로 순매에게 수작을 부린다.

세 번째 대면: 이생이 옆집 술집 노파에게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한 뒤, 순매를 만나 떠보았으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면: 이생이 순매의 옷을 벗긴 뒤 애무하며 방사를 치르기 직전까지 갔으나, 마침 순매의 이모가 찾아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실패한다.

다섯 번째 대면: 순매가 이생에게 주인집 제삿날 찾아올 것이니 그때 만나자고 한 뒤 돌아간다.

여섯 번째 대면: 이생과 순매가 성교를 하려고 대화를 나누던 중 순매의 아우가 찾아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실패한다.

일곱 번째 대면: 설날 그믐날 순매가 이생을 찾아와 다음에 기약을 정하겠다고 말하며 돌아간다.

여덟 번째 대면: 순매가 이생을 찾아와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오지 않는다.

아홉 번째 대면: 순매가 이생을 찾아와 핑계를 대고 새벽에 오겠다고 돌아갔으나 오지 않는다.

열 번째 대면: 순매가 이생의 집으로 찾아와 처음으로 성교를 하게 된다.<sup>11)</sup>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번째와 여섯 번째의 대면에서는 두 사람이 성교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각각 순매의 이모 간난이와 동생 순덕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위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처럼 이생과 순매의 만남에는 지속적으로 방해자와 방해요소가 등장하여 성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결과를 지연시키게 된다. 그런데 성사를 방해하는 이유로 언급된 사건들은 담화상에서 한 번도 유의미한 사건 맥락을 형성한 적이 없어서, 순매가 제시한 이유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한 독자는 두 인물이 밀고 당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독자라면 단지 상황적 요인으로 이생의 욕망 충족이 불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보다도 더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

11) 텍스트는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16을 사용하였다.

서사 진행의 향방에 주목할 수 있다.

이생은 열 번째 대면 만에 겨우 순매와 성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로 그들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후의 서사는 긴장감이 떨어진 채 곧장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그들이 처음 대면한 뒤부터 성교를 하게 될 때까지 걸린 스토리 시간은 2년이 넘고 텍스트에서 그 지점까지 서술된 분량은 전체 서사의 80%를 훌쩍 넘어선다. 이생이 언제쯤 순매와 성교를 하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담화 수준에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은 스토리 수준에서 진행되는 인물 관계의 전개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개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서술 방식이 실황 중개적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그들이 성교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 중도에 미리 성패의 여부를 확언할 수 없고, 욕망의 실현 여부 또한 불가지인 상태로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자의 궁금증도 그때까지 풀리지 않은 채 계속 지연될 것임은 자명하다.

<절화기담>에서의 지연 전술은 스토리 수준에서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건인 ‘이생이 순매와 성교하기’란 맥락 속에서 구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담화 수준으로 전환되어 독자에게 중개된다. 그러므로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교행위가 성사될 때까지 스토리 수준의 인물과 담화 수준의 독자에게 그 결과는 단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물론 텍스트 수준에서 서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독자는 재독의 과정을 통하여 성교하기라는 사건 자체의 지체가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이생이 언젠가는 결국 순매와 성교를 하게 되리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사의 성사가 계속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고 그런 반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매의 의도와 잔피라고 판단하게 되면, 행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성사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흥미로운 추측으로 남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지연

전술의 또 다른 독자적 범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 3) 인물은 모르지만 독자는 아는 경우

담화 수준에서 구사되는 지연 전술 가운데는 작가가 위성사건을 자꾸 만드는 방법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서술자가 계속해서 작은 사건들을 추가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시시콜콜하게 서술함으로써 서사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핵사건의 향방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독자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의미 해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취하는 전술이다. 이런 사례를 <심청전>에서 확인해 보자.

<심청전>에서 심청은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용왕에 의해 구조되고 다시 지상으로 나와 왕후가 된 뒤,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애초에 심청이 공양미를 바침으로써 아버지가 눈을 뜰 것이라고 확신한 채 바다에 투신을 했더라면, 맹인잔치가 아니라 맹인이었다가 개안한 사람을 찾는 잔치를 벌였어야 옳다. 부친의 개안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자기의 고향인 황주 도화동에 사는 맹인 아무개를 지목하여 찾는 것이 상봉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었다. 부친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면 왕에게 측은지심에 가득한 모습을 보이며 맹인잔치를 청할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되자마자 바로 자기의 신분

12) 혹자는 이것이 담화 수준의 서술 문제에서 생긴 지연이 아니라 스토리 사건의 결과 유예에 불과할 뿐이므로 지연 전술의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술자는 얼마든지 미리 말하기 *prolepsis*를 통해 사전에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굳이 실행 중계식의 서술을 고집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서술자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사 협의로 규정하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넓은 의미의 지연 즉 서술 특징상에서 발생한 지연 전술에 포함시켜 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과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찾아줄 것을 간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심청은 저간의 사정을 말하지도 않았고, 3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유를 감춘 채 비로소 불쌍한 맹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우원한 방식을 택하였다. 게다가 심청이 그 부친을 만나는 것도 잔치의 마지막 날 맨 나중에서야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 전에도 서술자는 심 봉사가 뺨덕어미를 후처로 맞이하여 심청의 목숨 값으로 마련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거나, 맹인잔치에 갈 때 뺨덕어미가 다른 맹인과 눈이 맞아 도망가게 하거나, 떡을 감다가 옷을 잃게 되거나, 여인들이 방아를 찧는 곳을 지나면서 음탕한 수작을 하게 하였다. 심청을 만나 눈을 뜨게 되기까지 고초를 겪는 일련의 사건을 덧붙이며 서사를 계속 지연시킨 셈이다.<sup>13)</sup>

스토리 수준의 인물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담화 수준에 있는 독자는 알게 되는 지연 전술의 다른 사례로 장면 묘사를 거론할 수 있다. 서술자가 매우 긴박한 상황이거나 사건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어야 정상적인 시점에서, 짐짓 판청을 피우거나 독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 대해 자세하고도 장황하게 그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춘향전>에서 보이는 다음 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도령의 거동 보소 춘향의 손목을 들업다 덩씩 마주잡고 가슴이 도근도

13) 하지만 이런 지연 전술이 구사되더라도, 독자들은 누구라도 결국은 심청이 그토록 염원하는 아버지와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청의 효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심 봉사에게 고초를 겪게 하는 기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소설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구현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의 끈질긴 형태를 보여주며, 독자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의 희망이나 두려움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유대를 형성하는바, 이것은 문학에서 특허처럼 받아들여지는 정의이자 도덕률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Nussbaum, Martha C., *Poetic Justic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출판, 2013, 36쪽을 참조함.

근 제두리뼈가 시근시근, 한 손으로 어깨 짚고 희희낙락 들어갈 때, 좌우편을 살펴보니 집치레도 황홀하다. 대문짝 좌우편에 울지경덕 진숙보요, 중문에는 위징 선생, 사면 활짝 높은 집을 입구 자로 지었는데, 상방 세 칸, 쌍벽장에 협방 두 칸, 대청 여섯 칸, 월방 네 칸, 부엌 세 칸, 광 다섯 칸, 중집 네 칸, 내외분합 물림퇴에 살미살창 가로단이 구을도리 선자 추녀 바리 받침 부연 달아서 맵시 있게 지었는데, 동편에는 광이요, 서편에는 마구로다. 양지에 방아 걸고, 음지에 우물 파고, 문전에 학중 선생, 긴버들 휘늘어진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습우습 춤을 추고, 앞뜰에 개를 놓고, 뒤뜰에 닭을 치고, 대 심어 울을 하고, 술 심어 정자로다. 뽕 심어 누에 치고, 울 밑에 벌 안치고, 울 밖에 원두 놓고, 뜰 아래 연정 지어 죽정으로 면을 받쳐 네모 반듯 껴었는데 못 가운데 석가산을 일층 이층 삼사층에 절묘하게 모아놓고, 비오리 쌍쌍, 징경이 너플, 대접 같은 금봉어는 못 가운데 노니는데 온갖 화초 다 피었다. 동에는 벽오동, 서에는 백매화, 남에는 홍모란, 북에는 금사오죽 한가하다. 한가운데 황학령, 월계, 사계, 종려, 파초, 작약, 영산홍, 왜철쭉, 연포, 도화, 국화, 매화를 여기저기 심어두고, 합환초 연리지에 비익조 다정하다. 오동차양 추녀마다 옥풍경을 달았으니, 청풍 건듯 불 때마다 앵그렁 쟁그렁 소리가 맑고 멀다. 배치한 것 돌아보니 백능화로 도배하고, 장유지 굽도리에 청능화 띠를 띠고, 동서남북 계건사호 문 위에 십장생 지계문에 남극선웅 벽화를 붙였는데, 동벽을 바라보니 송단의 상산사호 바둑판을 둘러앉아 흑백이 난만한데 돌 놓는 소리가 생생히 그려져 있고, 육여화상 성진이가 춘풍 석교상에 팔선녀를 만나보고 짚었던 육환장을 백운간에 흠어지고 합장하여 비는 형상을 역력히 그려놓았고, 서벽을 바라보니 ~ 남벽을 바라보니 ~ 북벽을 바라보니 ~ 담장에도 입술지추 칠월기망야에 소자침이 적벽강에 범주하여 노는 경도 신비롭게 그려놓았고, 부벽서로 불작시면 왕자안의 등왕각서,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태백의 죽지사, 소자침의 적벽부, 입춘서로 불작시면 원득삼산불로초하여 배헌고당백발친을. 북궐은광은 회수점이요, 남산가기계현영을. 작조채봉합서지하니 금일친관사복래라. 문짝에는 국태민안가급인 즉 문시호령가금불상, 문 위에는 춘도문전중부귀라 귀머리까지 붙였으니 만

벽서화 더욱 좋다.<sup>14)</sup>

인용문은 이 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만난 뒤 밤에 춘향의 집을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부터 춘향의 손을 잡고 대청까지 가는 동안에 보이는 좌우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흥분과 기대감으로 희희낙락해서 들어가는 실제의 걸음걸이 속도라면, 이 도령이 아무리 점잔을 빼며 걸어도 그리고 춘향의 집이 아무리 커도, 대문에서 대청까지 1분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밑줄 친 것처럼 청춘의 욕정에 불탄 16세의 이 도령이 야음을 틈타서 급하게 춘향을 찾는 것이라면, 켜 걸음으로 빠르게 걸거나 성큼성큼 걸어서 곧장 춘향의 방으로 들어가 바로 음탕한 수작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렇게 보아야 평균적인 독자의 인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묘사된 정경을 보면 춘향의 집은 고관대작의 집처럼 으리으리한데다가 화려하기 그지없게 꾸며져 있고, 이 도령은 마치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 집의 안팎 이곳저곳을 구석구석까지 찬찬히 감상하면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앞에서 이 도령이 보이던 행동을 익히 알고 있는 독자의 시각에서는 그가 춘향과 만나 방에 들어간 다음에 벌일 행위가 제일 궁금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짐짓 모르는 체 집 모양과 주변의 정경은 물론, 뜰에는 같은 계절에 피지도 않는 꽃이며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동식물이 가득한 것처럼 있는 대로 주워섬기고, 사면의 벽을 화려한 그림으로 치장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렇게 화려한 집은 춘향의 어머니인 퇴기 율매의 신분에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이렇게 벽화 또는 족자

14) 『남원고사』, 설성경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2, 춘향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291~295쪽. 참고로 이 책은 짝수 쪽에는 원문이 실려 있고 홀수 쪽에는 현대어 역이 실려 있어서 실제의 분량은 표시된 것의 절반이 조금 넘는 3쪽 정도이다.

화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거나 너저분하게 걸린 짐은 거의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독자의 궁금증은 이 도령의 걸음걸이 속도와 비례하여 커지는데, 서술자는 이처럼 의외의 방식으로 갑자기 속도를 감속시킴으로써 독자의 몸을 달게 한 것이다.<sup>15)</sup>

#### 4) 일부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경우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계속해서 다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를 재구성하면서 텍스트의 의미까지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그가 의미 해석을 위해 활용하는 인물과 사건에 관한 주요 지식과 정보는 우선적으로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는 고전소설에서는 신빙성 없는 *unreliable* 서술자가 등장하여 해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꽤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고전소설에서는 대개 서술자가 전지적인 시점을 취하며 특수한 권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독자는 담화상의 거짓 정보에 현혹될 염려 없이 서술자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독자는 이미 제시된 서술자의 발화를 믿고 자신이 나름대로 인물들의 관계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생겨난 다른 요소들을 보완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제공된 정보 말

15) 독자들에게 <춘향전>은 비록 매우 낮은 텍스트지만, 늘 새로운 독서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익숙한지의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처음에 읽을 때와 반복적으로 대할 때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판소리 공연에서였다면, 광대는 소설의 서술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현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고도, 독자가 의미 해석에 도움을 받는 주된 요소로는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맡은 역할이 지닌 본연적인 차이에서 유래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있다. 소설에서 등장인물 모두는 각자 맡은 역할과 처한 상황이 다른데, 여기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지식과 정보가 차이를 빚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독자에게 의미 해석의 근거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들 지식과 정보는 스토리 수준에서 생겨난 것인데, 서술자가 굳이 명시적으로 발화하지 않더라도 상위 차원인 담화 수준의 독자가 충분히 인지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sup>16)</sup>

스토리 수준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가진 정보라도 그 역할과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진 인물은 그렇지 못한 인물에 비하여 훨씬 여유롭게 사건의 진행 과정을 관망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물은 인지하지 못하여 놀림감이 되거나 수모를 겪거나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 예컨대 속이고 속는 과정을 핵심 모티프로 채용한 <오유란전>이나 <종옥전> 같은 유형<sup>17)</sup>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당한 일을 떠올려보자. 두 소설에

16)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스토리 수준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상위 수준에 있는 독자가 자기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실을 알 수는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굳이 비유하자면 같은 3차원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어항 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는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항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존재와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어항 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가 스토리 수준의 인물이라면, 밖에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항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담화 수준에서 독서를 하는 독자라고 하겠다. 그리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명한 어항 자체는 스토리 수준의 인물 행위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17) 이런 소설들은 남성취절형소설이라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조선조적인 관점에서 남성의 취절이란 국가나 당파의 권력관계나 사상 혹은 종교적인 이념 등과 연관된 거대

서는 지나치게 고지식한 인물이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속아 창피한 일을 당하고 그 고지식함을 떨쳐버리는 과정이 중심 플롯을 형성한다. 이때 스토리 수준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은 담화 수준의 독자가 가진 정보의 그것에 필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스토리 수준에서 구사되는 지연 전술을 사건 당사자 가운데 특정한 인물은 물론 담화 수준의 독자가 공유하게 된다.

<춘향전>에서도 이 도령과 춘향이 이별한 뒤에 상대에 대하여 갖게 된 정보에서 현격한 질적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고 전라도 암행어사에 제수된 이 도령은 이미 서울에서부터 남원의 사정을 일부 아는 상태로 출발한다. 게다가 암행하는 도중에 방자를 만나 춘향의 편지를 얻어 읽거나 농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원에서 춘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더 자세히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춘향이나 그의 모친을 비롯한 친지들은 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된 것은 물론 과거에 급제한 사실까지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처지와 가진 정보의 질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 도령을 속이는 자, 춘향을 속는 자로 만들어 춘향을 시험하는 양상으로 비화시킨다. 우월한 힘과 충분한 정보를 소유했기에, 이 도령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다. 거지 차림으로도 느긋하게 춘향의 집에 찾아가 월매에게 편잔과 지청구를 들으며 밥을

---

담론상의 문제였지, 과거급제를 위한 집념이라든가 성적인 방탕에 대한 혐오 등 개인의 가치관에 한정되는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유형의 소설에서 속임수에 넘어가 창피를 당하는 남성인물은 편협한 지조를 훼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각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남성훼절형소설이란 술어는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나 유형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않고, 오히려 脫殼小說 혹은 覺醒小說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굳이 유형의 명칭 사용을 배제한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이다. 남성훼절형소설에 대해서는 여세주, 『조선조 남성훼절형소설의 형성과 변이 양상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61쪽.

얻어먹는 것이나, 옥중으로 춘향을 찾아가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모두 이런 힘에서 나온다. 반면에 권력관계에서도 열세한테다가 가진 정보가 없고 궁지에 몰려 있는 춘향은 자기를 찾아온 이 도령의 차림새를 보고 더욱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 뿐이다.

이 도령은 옥중으로 찾아가 춘향의 몰골을 보고도 자신이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을 직접 발설하지 못하고 다만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도령의 거렁뱅이 옷차림만을 보고 있는 춘향은 그가 암시하는 바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미 자신이 꿈 꿀을 흥몽이라고 여기는 춘향에게 판수가 영귀할 길몽이라고 풀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망에 빠져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춘향은 현실을 더욱 더 절망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게다가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 어사출두를 하여 징치를 행한 이 도령은 춘향에게 얼굴을 가리고 수청을 들 것을 요구하여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뜨린다. 이것은 정보가 제한된 춘향에게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지연 전술의 소산인 것이다.

### 3. 지연 전술의 의도와 효과

#### 1) 이념 지향과 교훈성의 강화

작가 또는 서술자가 왜 지연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거둔 효과는 무엇인가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다면, 그 시각은 효용론적인 측면에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거론된 소설들 가운데 <심청전>과 <춘향전>에서 구

사된 지연 전술의 의도와 효과는 이념 지향과 교훈성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sup>18)</sup> 그것은 특히 유교 이념의 교육과 관련이 깊다.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공양미 3백석에 팔려간 뒤 심 봉사가 맹인잔치에 참석하기까지 겪는 사건에서 지연 전술이 구사되었다. 서술자는 새로운 사건을 계속 끌어들이며 서사 진행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있는데, 독자들의 비등하는 관심에 반하는 이런 전술의 구사에는 분명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심청전>에서는 이러한 지연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2가지 방향에서 효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각각 심청과 심 봉사라는 두 인물의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드러난다. 먼저 심청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윤리 이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심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부친이 눈을 뜬 뒤에도 한없이 기뻐하며 결혼을 시킬지언정, 허름하고 께죄죄한 맹인이 부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러운 감정도 가진 적이 없다. 이를 통하여 효라는 것은 부모의 선악이나 빈부나 유무식의 차이와 무관하게 자식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고한 상항적 윤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심 봉사의 변화를 통해 드러내는 윤리 이념이다. 심 봉사는 부인이 죽은 뒤부터 대궐에서 열리는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전까지 줄곧 어딘가 좀 모자라고 체구실도 못 하는 인간처럼 행동하였다. 학식은커녕 양심과 배알도 없이 남의 손에 놀아나는 몽매한 무지렁이일 뿐이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고귀한 인물이 된

18) 교훈성이나 윤리 교육적인 효과가 반드시 지연 전술만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편폭이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연 전술은 다른 기법이나 요소들과 더불어 혹은 다른 것들보다 앞서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런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비록 전술과 효과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사실 자체까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딸을 만난 뒤부터는 갑자기 현현장부로 환골탈태한다.

왕이 혼연히 좌를 주시고 전후스연을 문답하여 후의 고상하던 일과 근절하던 효성을 듣고 일변 인련이 넉이시며 일변 흠탄하여 즉시 공의 벼슬을 도도와 호부상서 겸 대스마 초국공을 하이시고 노비 던결과 별궁을 스급히 시고 골으샤디 국귀 년기 미쇠하였스니 모로미 취실홀지어다. ~ 길일을 당홈에 초공이 위의를 갖초와 혼가로 나아가 횡례홀시 신랑의 현양함과 신부의 현숙함이 츳등이 업는지라.<sup>19)</sup>

심 봉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은 바로 왕후가 된 딸을 만난 덕분에 눈을 뜨고 벼슬도 얻고 결혼도 하게 된 때이다. 심 봉사가 혼인을 하게 된 것은 왕의 명에 따른 것이지만, 그 절차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것은 심청의 몫이었다. 소설에는 ‘심휘 친히 혼구를 준비하여 스급히시고 상궁을 보내어 길석을 돕더라’<sup>20)</sup>는 서술자의 언급은 이를 증명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孝經』에 나오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는 선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효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인 심청이 ‘揚名於後世 以顯父母’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지렁이 맹인을 일약 공경대부에 오른 현현장부로 만드는 것보다 더 특별한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청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궁극의 효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부친이 재혼을 통해 아들을 낳고 대를 잇게 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맹자가 말한바 ‘不孝三千 無後爲大’라는 최대의 불효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심청전>의 서술자는 직접적인 혼계의 표현을

19) <특전소설 심청전>, 서울 신문관, 대정 2년(1914), 46~47쪽.

20) <특전소설 심청전>, 위의 책, 47쪽.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았더라도, 심청의 행위에 드러나는 효성을 통해 강력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녀의 상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심 봉사의 고초와 수모가 상봉 후 심청의 효행을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지연 전술과 교육적 메시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춘향전>에서는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 그녀의 변함없는 지조와 사랑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과 장면 묘사 과정에서 구사된 지연 전술을 거론했었다. 그 모두에서 서술자의 의도와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성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독자가 그 의도에 부합하는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지연 전술에 담긴 서술자의 의도는 십분 구현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먼저 장면 묘사에 투영된 의도를 보자. 대문에서 춘향의 방까지 가는 과정에 거론되는 그림이나 글씨는 일정한 체계가 없이 마구잡이로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중국의 유명한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으로, 춘향이 일자무식의 기생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양과 학식이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징표가 된다. 뒤에서 이 도령이 춘향과 수작할 때 여러 차례에 걸친 이 도령의 희롱에 대하여 춘향이 각종 고사를 들어 대답하거나 변학도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대거리하는 것은 이러한 장면과 무관치 않다. 춘향은 행실이 단정치 못한 천박한 기녀가 아니라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규중처자이며, 일부종사를 중시하고 한 남자에 대해 절개를 지키려는 지고지순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 도령이 암행어사 제수를 받고 남원에 내려와 옥중의 춘향을 만나는 일을 거쳐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직접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구사된 지연 전술에 투영된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는 사건이 이어진다.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지시하는 일, 춘향을 억박지르고 곤장을 쳐서 하옥하는 일, 춘향이 판수로부터 꿈에 대한 풀이를 들으며 죽음을 각오하는 일, 춘향이 이 도령을 만난 뒤 모친에게 이 도령을 두둔하며 자기가 죽은 뒤에 서방님을 잘 보살펴달라고 유언하는 일, 암행어사의 수청 요구에 대하여 사리를 들어 거부하는 일 등은 모두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기제들이다. 춘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연 전술이 더욱 가혹하게 펼쳐질수록, 이 도령을 향한 그녀의 절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따라서 <춘향전>의 이 부분에서 구사되는 지연 전술이 발휘하는 효과는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춘향은 여성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반복될수록 독자들에게 각인되는 윤리 이념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춘향은 모진 수모 끝에 출세한 이 도령과 재회하고 끝내는 정렬부인에 봉해졌다. 이것은 독자에게 여성이 절개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 매우 큰 것이라고 각인시키는 효과로 전환된다. 만일에 독자가 그러한 서술자의 의도를 수용하고 춘향의 행동에 대하여 진정한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면, 그리고 춘향의 행위를 모범으로 삼아 배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 서술자의 의도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봐도 좋다. <춘향전>의 지연 전술에 나타난 윤리는 <심청전>에 나타난 윤리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주입의 측면이 강한데, 이것은 효와 열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지닌 차이의 유래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 2) 재미 추구와 쾌락성의 제고

독자가 소설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미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깊이 있는 사상과 철학도 독자로

하여금 두고두고 곱씹게 만들기 어렵다. 소설에서 재미는 사상과 철학이라는 쓰디쓴 알약을 감싸고 있는 糖衣인 셈이다. 음담패설이 많이 수록된 조선조의 야담집들에는 잠을 쫓을 만한 재미 그 자체를 교훈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간주한 서·발문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글들은 재미가 교훈보다 우선적인 문제리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만하다.<sup>21)</sup>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대부 저자들이 써놓은 이 글들은, 점잖은 선비가 그런 책을 짓고 읽는다는 사실에 대해 가해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구실로 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의 효용론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거나 문학을 윤리 교육의 재료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옛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사고와 판단과 주장은 전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

21) 예컨대 洪瑞鳳이 쓴 『續禦眠榻』의 다음과 같은 발문에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예전에 취은 송세림이 『어면순』을 지어 한가함을 즐기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무리와 실의에 빠져 적막한 무리들이 책을 열어보고 활짝 웃으며 시름을 잊게 해주었으니, 잠을 쫓는 기이한 방책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근자에 쌓인 성여학이 또 취은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아 책 한 권을 짓고 이름을 『속어면순』이라 하였다. 대개는 속되고 비루한 말들을 잡되게 가져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손뼉을 치며 활짝 웃게 함으로써 잠의 마귀가 쫓겨 가는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취은의 책과는 형제적이라고 하겠다. 혹자는 ‘기록된 것들이 더러운 도량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저분하니 덕을 상하고 말을 낭비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하겠다. ‘그렇지 않다. 『예기』에서 ‘당기지만 하고 늦춰주지 않는 것은 문왕 무왕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시경』에서는 ‘농담도 잘 하나 지나치지 않네’라고 하였다. 성균의 이 책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고 징계함이 있게 한다. 그러니 어찌 단지 유희와 해학의 밑천이 되는 것에만 그치겠는가?’”(昔者 醉隱宋世琳著 禦眠榻 要使耽閑好事之輩 失意寂寞之徒 得以開卷 破顏忘其憂愁 可謂却睡之一奇方也 近有雙泉成君汝學 又哀醉隱之所未錄 撰成一卷 目之曰 續禦眠榻 蓋亦雜取俚談鄙語 令人撫掌而發粲 自不覺睡魔之退去 其與醉隱之書 可相魯衛也 或謂所記 多涉瀆慢 無乃傷于德而費於辭乎 余曰 不然 記張而不弛 文武不爲也 詩曰 善戲謔兮 不爲虐兮 成君此書 足令人有感有懲 則奚止於遊戲諧謔之資而已哉) 洪瑞鳳, 『續禦眠榻跋』, 유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이문화사, 1994, 82쪽에서 재인용. 유탁일의 책에는 『시경』의 인용구가 ‘善爲謔兮 不爲謔兮’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원래의 뜻에 맞게 해석하였다.

그런데 모든 음담패설에 권선징악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재미와 쾌락성을 부각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대해 효율론적인 관점을 적용하거나 교훈성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 홍서봉의 표현대로 ‘有感有懲’이라는 교훈성을 효과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할 단서가 있어야 한다. 정욕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인물들이 파멸하거나 벌을 받거나 적어도 후회의 감정이라도 가져야만 그것을 근거로 용이하게 교훈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서술자가 단지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남녀가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담담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다면, 그 사건 맥락으로부터 어떤 윤리 이념이나 교훈성이라는 관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재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2장에서 거론한 소설 가운데 <절화기담>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어린 유부녀 순매의 아리따운 모습을 처음 본 이생이 흑심을 품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발단된다. 이생의 욕망은 오로지 순매와 잠자리를 갖는 것뿐이었다. 그는 순매와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유부녀를 탐하는 데 대한 어떠한 도덕적 고민도 없었고, 긴 시간 동안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등한시하는 데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며, 성교를 하고 난 뒤에도 상대의 배우자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됐을 때도 그것만 안타까워했을 뿐 자신의 행위나 유부녀를 탐한 데에 대한 후회의 감정 따위는 전혀 보인 적이 없다. 순매가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성교를 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남편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는 볼지 언정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고민이나 죄책감을 가진 적이 없다. 순매는 핑계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생의 욕망에 부응하고 싶는데 어떤 사

유가 생겨서 이번엔 안 된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생과 순매의 심중에 도덕적인 가책으로 인한 망설임은 깃들어 있지 않다.

나는 이러한 사건의 맥락에 몰입하여 밀착된 독서를 하는 독자들의 첫 반응도 이들의 부끄러움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 발로 찾아와 이생과 성교를 하기 직전까지 행위가 진척되었던 순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어도 처음부터 악한 행동을 보이거나 악한으로 규정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으므로, 이 소설에서는 독자가 인물의 도덕성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며 독서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순매가 부정한 여인이라서 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거나 하늘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하필 이럴 때 또 방해자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나 또는 이생이 과연 언제쯤 순매와 성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커다란 궁금증을 가진 채 다음 만남에서의 성사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공산이 크다. 독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늘 인물의 행위와 사건의 연쇄이지, 인물들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인 정당성 여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절화기담>은 교훈성을 논할 근거가 별로 없는, 다만 재미와 쾌락성을 집중적으로 추구한 소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법으로 지연 전술이 자연스럽게 구사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소설의 의미를 파악하는 관건이다. 이 소설은 우리의 고전소설 가운데는 윤리적 이념과 교훈성이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이며, 서사의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텍스트의 대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연 전술을 구사하여 재미와 쾌락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한 소설이라고 할 만하다. 성적 욕망이 서사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라고 한다면, 지연 전술은 그것에 입체감을 붙여넣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쾌락성과 교훈성의 조화

소설이 주는 유희적 혹은 교육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효용론적인 관점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소설이 전적으로 교육적 효과만을 의도하여 창작되었다거나 반대로 온전히 유희성의 극대화만을 추구하여 지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특별히 교훈성만을 의도하고 지은 소설이라도 그 속에 재미있는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 않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널리 유통되어 읽히기도 어렵다. 그와 반대로 오로지 재미만을 표방하여 지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교훈이 될 만한 가치나 효과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게 마련이다.

쾌락성은 독서 과정에서 발견하는 상황적 성격이 강하고, 교훈성은 독서가 끝난 뒤에 나오는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순서와 과정이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설들 중에는 뚜렷하게 쾌락성과 교훈성 즉 재미 추구하고 특정한 가치 교육에 균형을 맞추고 조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지연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없지 않다. 이러한 소설에서는 스토리 수준의 사건 맥락에서 발생한 재미가 서술자에 의해 담화 수준의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텍스트 수준에서 다시 교훈성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그 외에 서술자가 서사 전개 자체가 주는 쾌락적인 측면 위에 교훈적인 발언을 덧붙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권위 있는 서술자에 의해 강조된 발언이 담지하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독자에게 매우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남가록>에서 구사된 지연 전술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사건의 지연 사실에 대한 갑작스런 폭로의 결과로, 인물은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심신을 수양하게 되었고 독자는 뜻밖의 재미에 무릎을 치고

감탄하며 소설 속으로 더 몰입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연 전술은 단지 재미만을 주기 위해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에 대한 진술을 감춘 것이 아니라, 인물이 영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계략으로 구사된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구사된 매우 정교하고도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인 전술이었다는 말이다. 교훈성은 쾌락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 전술은 단지 스토리 수준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화 수준의 독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줄 때 기획된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도 정말로 그럴 수 있었겠는지 스토리 수준에서 석태의 아버지의 황응이 아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그를 보고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금포의 놀이는 즐거웠느냐?” 석태가 땅에 엎드려 있으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꾸짖어 말했다. “내가 촌스럽고 거친 필부로 재산이 있는 것을 지키고 잃지 않은 것은 분수를 지켜 근신했기 때문이다. 사서에 군주가 교만하면 나라를 잃고, 대부가 교만하면 가문을 잃고, 서인이 교만하며 자신을 잃는다고 하였다. 교만하면서도 망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우물 안 개구리의 소견으로 스스로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대하국 대장군 정실에게 흑심을 품었다. ~ 사지에 던졌다가 구출하여 너로 하여금 교만함이 넘치는 행동이 가져올 재앙은 헤아릴 수 없음을 알게 한 것이니 삼가도록 하여라. 즐거움이란 끝이 없는 것이니 허물을 그치는 것으로 인도하고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여라.” ~ 아버지께서 또 위로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겠느냐? 그래서 고치는 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라.”<sup>22)</sup>

22) 조용호 역(2008), 앞의 책, 95~96쪽.

황웅은 아들인 석태가 방탕하게 놀아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대하국에 놀러가기를 원했을 때도 흔쾌히 허락하면서 미리 연극관을 만들고 그 나라 대장군의 정실을 피어 황웅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을 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큰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이 가르침은 황웅이 아들을 대오각성하게 만드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이런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석태는 큰 뜻을 세우고 청사에 이름을 날리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며, 또 이웃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무예를 닦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꿈속에서 신성한 노승의 도움을 받아 갑자기 지혜와 괴력을 지닌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황웅이 아들을 위해서 준 가르침은 단지 스토리 수준의 인물인 석태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맥락과 관련된 모든 사후 진술들이 동시에 담화 수준의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비단 인물인 석태에 그치지 않는다. 황웅이 아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모두 그대로 독자에게로 향하는 가르침으로 격상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황웅의 말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금과옥조이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석태가 보여주는 영웅적인 활약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 효과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목격한 독자들은 그 가르침이 인물의 행위를 통해 실현된 효과에 감복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황석태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구사된 지연 전술은 독자에게도 쾌락성과 교훈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지연 전술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 4. 결론

지연은 서사의 층위에서는 스토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모두 나타나고, 시간 조직의 방식에서는 순서·지속·빈도와 유관하며, 텍스트의 소통에 참여하는 작가·서술자·작중인물·독자 등 모든 인격들이 관련되고, 접근법으로는 문학의 테두리인 표현론·효용론·존재론·모방론과 모두 연관된다. 따라서 서사론에서 핵심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점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깊이 천착한 논의들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 점을 아쉬워하며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소설에서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방식과 의도와 효과는 무엇인지, 그 양상을 정리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왔었다. 이 논문은 그 고민을 범박하게 풀어보려 한 결과물인 셈이다.

지연 전술은 정보의 소유 여부와 긴밀히 연관된다. 그러므로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독자 가운데 누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우선 주목해야 했다. 스토리 수준에서만 구사될 때는 인물이 지닌 정보의 차이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는데, 독자는 사건의 내막이 인물 또는 서술자에 의해 발화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담화 수준에서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서술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각에서 나는 일부 인물은 알지만 독자는 모르는 경우, 인물과 독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 인물은 모르지만 독자는 아는 경우, 일부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경우라는 4개의 범주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남가록>·<절화기담>·<심청전>·<춘향전>을 주 대상으로 삼아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지연 전술을 채택하는 의도와 효과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의도는 크게 교훈성을 지향하는 경우, 쾌락성을 추구하는 경우, 쾌락성과 교훈성을 조화시키려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설의 서술자가 지연 전술을 통하여 쾌락성을 추구하더라도 독자는 거기에 투영된 교훈성을 읽어내게 마련이며, 교훈성을 추구하더라도 흥미가 없으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어떤 식으로든 흥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작가가 쾌락성과 교훈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발상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춘향전>과 <심청전>은 주로 교훈성을 지향하고 있고, <절화기담>은 쾌락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남가록>은 교훈성과 쾌락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연 전술이 구사되는 방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훈성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쾌락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교훈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모두 오래된 소설이 아니며, 쾌락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성보다는 쾌락성을 추구하거나 뚜렷하게 둘의 조화를 기도한 소설은 작가가 서사를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구성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절화기담>과 <남가록>은 기법상 <심청전>과 <춘향전>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이 소설의 가치를 담보한다는 데로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소설의 가치가 단지 그러한 기법의 운용 측면에서만 생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 두 소설이 모두 오로지 작가의 구성력·창의력·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적인 서사 구성의 방식에서 전자는 <삼국지연의>에서, 그리고 후자는 <금병매>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의 위상과 가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을 지연 전술의 구사 방식을 통해서 확인한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륙전소설 심청전』, 서울 신문관, 대정 2년(1914).
- 강경미, 『『남가록』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2014, 11~37쪽.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16, 1~255쪽.
- 설성경 역주, <춘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291~295쪽.
- 여세주, 『조선조 남성쇄절형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61쪽.
- 유태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1~622쪽.
- 조용호 역, 『한국 최고의 전쟁·종교·환상소설 남가록』, 도서출판 박이정, 2008, 1~451쪽.
-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1-203.
-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v. Press. 1980, pp.1-160.
- Nussbaum, Martha C., *Poetic Justic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출판, 2013, 1~282쪽.
-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228쪽.

## ABSTRACT

## On Aspects of Narrative Retardation in Korean Classic Novels

Cho, Yong-ho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aspects of narrative retardation in Korean classic novels. Narrative retardation usually arises from differences in information about events that are known to the character at story level and to the reader at the discourse level. I focused on this fact and divided the aspect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resence and difference of the information perceived by the character and the reader. In addition, I investigated how they appear in real novels. The novels researched in this study were four books, including *Nam-ga-rok*, *Jeol-hwa-gi-dam*, *Shim-cheong-jeon*, and *Chun-hyang-jeon*. The tactics of narrative retardation adopted in these novels were evenly distributed in the four categories and were realized in various aspects.

Next, I analyzed the intention and the effect that the writer or the narrator used the retardation tactics in the four novels. As a result, the intention to use the retardation tactics was converged to strengthen didactics, enhance pleasure, or harmonize pleasure and didactics. Especially in the novels, *Jeol-hwa-gi-dam*, which mainly pursued pleasures, and *Nam-ga-rok*, which tried to harmonize didactics, succeeded in inducing the interest of the reader by using sophisticated techniques, so they deserved to be evaluated as showing the advanced form in classic novels. This suggests that the retardation tactic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Korean classic novels.

**Key Words** retardation, information, story, discourse, perception, didactics, pleasure, *Nam-ga-rok*, *Jeol-hwa-gi-dam*

논문투고일 : 2018.07.15

심사완료일 : 2018.08.14

게재확정일 : 2018.08.24